

## 숲의 희망, 숲의 꿈

자라나는 아이에겐 푸른 내일을
꿈꾸는 청춘에겐 활기찬 내일을
아름다운 중년에겐 희망찬 내일을
늘 그곳에 서서 숲은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www.forest.go.kr**

산림청




*Vol. 15*
*November*
*December*
*2016*

# 내변산과 전나무

**MAGAZINE** 숲

**발행일** 2016년 12월 16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樅木

## 전나무

곧게 뻗은 가지
아름드리 줄기
그리고 짙푸른 잎까지

전나무는 겨울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하얀 눈이 전나무에
소복하게 쌓이면,
그 느낌은 배가 되죠.

겨울호 〈magazine 숲〉은
겨울숲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나무를 찾아 떠납니다

*Vol. 15*
*November*
*December*
*2016*





*Contents*

내변산과
전나무

4. **단상**
겨울 곁에 서 있는 전나무
– 전나무

6. **여행**
산과 바람을 따라 바다와 파도를 따라
자박자박 느리게 걷기
– 내변산 전나무 숲길

12. **역사**
최치원
전나무로 다시 태어나다
– 최치원과 전나무

16. **문화**
전나무가 선사하는 한겨울의 로망스
– 크리스마스 트리 전나무

18. **인포그래픽**
사시사철
푸르고 곧은 전나무
– 전나무 정보

20. **월드 트래블**
천 년을 살아가는 나무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22. **가드닝**
공중, 정원이 되다
– 행잉 가드닝

26. **산 그리고 사람**
건축의 본질, 건물 아닌 그 안의 '공간'
– 건축가 승효상

30. **약초도감**
돌아오시라 마음 담아
사랑하는 임에게
– 당귀

32. **어떤 날 숲**
우리의 청춘은 너희가 있어
언제나 현재 진행형
– 서울 낙산공원

36. **그린 테이블**
뚝딱하고 만드는 제철 반찬
– 더덕, 석이버섯

38. **숲에서 자라는 가치**
감이 익고 또 다시 익는 꿈의 터널
– 청도감와인(주)

42. **캠핑**
캠핑&여행 그 일석이조의 즐거움
– 마지막, 캠핑 두 배로 즐기는 방법

46. **산촌일기**
잠깐의 웅크림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 여섯 번째 이야기

50. **아트테라피**
선 따라 완성하는 겨울의 기쁨
– 전나무

52. **독자 메시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독자 엽서

**표지 일러스트**
박지애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forestkorea**
**인스타그램 @forest_korea**

Special

樅木

단상

# 겨울 곁에 서 있는 전나무

모든 나무가 제 나름의 멋과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아무래도 겨울에는 '상록수'가 유독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나무는 상록수를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이지요. 찬바람 쌩쌩한 겨울날, 숲에서 만난 전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무척 늠름합니다. 곧게 뻗은 가지, 아름드리 줄기, 짙푸른 잎까지. 하얀 눈이 전나무에 소복이 쌓이면, 그 모습은 두 배로 더 아름답지요.

전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엽수입니다. 특히 높은 산에서 잘 자라는 전나무는 오대산, 설악산을 비롯해 북부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지요. 다 자란 높이는 약 30~40m로, 제 몸을 절대로 굽히는 일 없이 아주 곧게 뻗어 올라간답니다. 전나무의 수려한 외형만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나무의 솔방울입니다. 다른 전나무류의 솔방울은 땅을 향해 달리는 반면, 전나무의 솔방울은 하늘을 향해 아주 힘차게 자라난답니다.

전나무는 '젓나무'로도 많이 불립니다. '전나무와 젓나무는 다른 나무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두 같은 나무를 뜻합니다. 또 전나무의 수피에 흰빛이 돈다 하여 백송이라고도 불리고, 한자로는 종목(樅木)이라고도 사용한답니다. 우산을 펴듯 퍼지는 가지 모양이 마치 바람을 타고 말이 질주하는 모습 같다 하여 '포마송'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전나무의 쓰임새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겨울철, 그 수많은 상록수 중 왜 전나무를 트리로 만들까요? 아마도 나무 자체의 수려한 멋 때문이지 않을까요? 거리거리마다 수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따듯한 이야기를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올해만큼은 전나무로 트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 안으로 들어온 전나무가 화목과 행복을 전해줄지도 모르니까요.

Special

樅木

여행

# 산과 바람을 따라
# 바다와 파도를 따라

## 자박자박 느리게 걷기

### 내변산과 전나무 숲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 늘 창창하게 빛나는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겨울을 만끽했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도 새파란 전나무의 이파리는 저물 생각을 않는다.





1.

2.

**내소사**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문의 : 063-583-7281

### 비우기 위한 여행

한 해의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12월. 그래서인지 12월은 여느 달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지나온 열한 달의 추억과 앞으로 이어질 계획이 함께 공존해서일까. 마무리는 마무리대로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은 계획대로 그렇게 정리되어가고 있을 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토닥여주고 싶었다.
한해의 끝과 한해의 시작을 함께 정리하기 위해, 전라북도 부안군을 찾았다. 사계절 내내 푸름을 잃지 않고 늘 창창하게 서 있는 전나무 숲을 걸었고, 사계절 내내 거친 파도와 거센 물결이 요동치는 변산반도를 마주했다.

### 아름다운 숲길, 고즈넉한 사찰

먼저 전나무 숲을 걷기 위해, 내소사를 찾았다. 내소사는 내변산 자락에 자리한 사찰로,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1300여 년이나 된 내소사. 임진왜란 때 피해를 입고 다시 복재되기까지 그 과정이 여간 여의치 않았다. 검게 그을린 건물, 아무것도 자리하지 않는 터가 얼마나 삭막했으랴. 그러한 풍경을 없애고자, 150여 년 전 일주문에서 사천황문에 이르는 길에 전나무가 심어졌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소사는 또 한 번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도 이곳 일주문이 시작되는 전나무 숲길만은 무사했단다.
내소사 입구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자 매표소가 나왔다. 그리고 여느 등산로와 다를 바 없이, 여러 가게가 쭉 늘어서 있다. 조금만 더 걸어 들어서자, 울울창창한 전나무의 향연이 시작된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전나무가 기세등등하게 서 있다.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니, 족히 30~40m는 될법한 크기다.
약 500m 정도 되는 전나무 숲길은 누구나 와서 걸어도 부담이 없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겁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150년 전, 이곳에 전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내심 고마움을 느꼈다. 전나무 숲의 한낮은 무척이나 풍요로웠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그렇게 전나무에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에 마음을 뺏겨 걷다 보니, 고즈넉한 내소사 풍경에 그만 발걸음을 멈췄다. 화려하지 않은 전각은 고즈넉한 분위기에 정갈한 느낌을 더한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년)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소래사(蘇來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능가산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싼 경내에는 대웅보전, 고려동종이 걸린 범종각과 봉래루, 설산당, 요사채 그리고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1.
내소사는 내변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2.
임진왜란 때, 내소사는 한 번 불타 소실됐었다. 다시 내소사를 지었고, 그때 삭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일주문에서 사천황문에 이르는 길에 전나무가 심어졌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지은 유홍준 교수는 내소사를 한국의 5대 사찰 중 하나로 꼽았다. 건물 자체의 수려함보다, 산과 어울리는 그 조화로움을 매력으로 꼽았다고 한다.
내소사에는 전나무 말고도 마음을 흠뻑 빼앗는 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 24개의 기둥을 가진 봉래루 앞에 서 있는 보리수나무,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당나무가 바로 그것. 화려한 단청, 수려한 건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아름드리나무가 있어 무척이나 아름답다.

### 바람과 파도가 만든 역작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크게 '외변산'과 '내변산'으로 나누는데, 바다 쪽이 외변산 내륙쪽이 내변산이다.
산과 바다가 함께 공존하는 변산반도는 내변산 12경 외변산 12경 해변산 12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때문에 '산해절승(山海絕勝)'이라 불리기도 한다고.
외변산에는 변산 제일의 명소인 '채석강'과 '적벽강'이 있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한 퇴적암이 바다와 어우러져 진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산과 바다를 함께 마주할 수 있다고 하니, 전나무 숲길을 걸은 뒤 변산반도를 찾았다.
채석강은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져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격포항~격포 해수욕장 사이 닭이봉(200m) 일대에 형성된 채석강은 마치 책을 층층이 쌓아올린 것 같은 모습이다. 그 신비로운 모습에 그저 감탄사만 터져 나올 뿐이다.
이곳을 만든 것은 바람, 파도, 달 그리고 시간이다. 조수간만의 차로 절벽이 바닷물에 침식되어 지금과 같은 지형이 완성됐다. 그러하니 채석강은 바람, 파도, 달 그리고 시간의 합작품인 셈이다.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돌개구멍, 파식와(波蝕窪, 바닷가 암벽 아랫부분에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 등 다양한 지질도 관찰할 수 있다.




3.



3.
내소사는 산과 어울리는 조화로움 때문에 더욱 매력있다.

4.
채석강은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져 나가야만 마주할 수 있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한 퇴적암이 바다와 어우러져 진풍경을 자아낸다.

5.
물때에 잠시 잠겼던 바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바위는 채석강의 주인공이 된다.

6.
물이 빠져나가면 이곳에서 돌개구멍, 파식와와 같은 다양한 암석도 관찰할 수 있다.



4.

채석강의 바로 옆, 적벽강 또한 다양한 지질층을 만날 수 있는 곳. 적벽강의 바위는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여인, 토끼, 사자 등을 떠오르게 하는 바위가 마치 조각 전시장을 거니는 느낌을 준다. 특히 해 질 녘에 찾으면, 노을빛에 물든 암석들이 더욱 다양한 모습을 빚어낸다고 한다.
산과 바람을 따라 걸었다. 파도와 바다를 따라 걸었다. 어떤 목적 같은 것 없이, 그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걷고 걸었다. 목적이 없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지나온 계절을 떠올리며, 새로운 해를 맞는다. 완성보다는 불완전했던 지난해를, 그저 내려놓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생겨나는 욕심도 지긋이 내려놓았다. 많이 채우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많이 비우기 위한 걸음이었던 시간. 그렇게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해져만 간다.

**채석강**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적벽강**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2-20

5.



6.





Special

# 樅木

역사

# 최치원

## 전나무로 다시 태어나다

### 전나무와 최치원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희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을 노래한 사람도 많았고, 실제 부활한 존재도 있었다.
사람이 나무로 부활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어떤 나무로 부활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희망의 메시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글. 강판권(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러스트. 정윤미



**부활 : 학사대의 비밀**

정남 합천 해인사의 '학사대(學士臺)'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부활한 전나무를 일컫는다. 최치원은 지금부터 1160년 전인 신라 문성왕 19년 즉, 857년에 태어났지만,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학사대는 그가 '언제' 죽었는지 보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다. 나는 인간이 나무로 탄생한 사실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그저 전설로만 여긴다. 그러나 나무로 탄생한 전설은 일반적인 전설과 성격이 다르다. 인간이 최치원의 죽음을 살아 있는 나무로 부활했다고 믿는 것은 최치원의 존재를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최치원이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하필 소나뭇과의 늘푸른큰키나무인 전나무로 탄생한 것은 최치원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염원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식물학자 막시모비츠(Maximowicz, 1827-1891)가 붙인 전나무의 학명 중 속명인 아비에스(Abies)는 '전나무'를 의미하는 라틴이름이다. 종소명인 홀로필라(holophylla)는 '갈라지지 않는 잎'을 뜻한다. 전나무는 재질이 좋아 예부터 건축재, 특히 기둥재로 많이 사용했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 보관 건물인 수다라장, 그리고 경남 양산의 통도사와 전남 강진의 무위사 기둥의 일부도 전나무다. 유럽에서는 전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한다.

학사대 전나무는 해인사 수다라장 북쪽에 살고 있다.
이곳의 전나무는 250살을 먹었으며, 2012년 11월
13일에 천연기념물 제541호로 지정됐다.
전북 진안군의 천황사전나무(천연기념물
제495호)가 800살인 점을 감안하면
학사대전나무의 나이는 아주 어리다.



최치원의 후손인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의 『백불암집(百弗庵集)』에 1757년경 후계목을 심었다는 기록으로 보면, 현재의 학사대 전나무는 후계목일 가능성이 높다. 학사대 전나무는 높이 30m에 달할 정도로 웅장하다. 우리나라 나무 천연기념물 중에서 250살 정도의 나무는 아주 드물다. 그런데도 학사대 전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삼은 것은 나무의 수령보다 역사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학사대 전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역사성을 강조한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나무의 역사성을 평가하는 것은 나무의 생물학적 가치를 넘어 문화가치로 격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에는 최치원과 관련한 유적이 적지 않다. 나는 최치원의 유적 중에서 학사대 전나무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사대 전나무의 가치는 나무가 인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높다. 나는 그 동안 학사대 전나무를 수 없이 찾았다. 갈 때마다 전나무의 위엄에 감탄한다. 학사대 전나무는 하나의 줄기에 가지가 두 갈래로 뻗었다. 돌면서 나무를 바라보면 전나무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 줄기는 북쪽으로 조금 기울어있지만, 뿌리가 반대편으로 뻗어 균형을 잡고 있다. 나는 학사대 전나무에 가면 바로 앞 독성각을 즐겨 바라본다. 독성각은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성자를 모신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성을 나반존자(那畔尊者)라 한다. 나는 최치원도 나반존자처럼 이곳에서 독성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 학사당의 전나무

홍류동(紅流洞)은 해인사의 명소다. 그 까닭은 최치원을 기리는 핵심 유적지라서다. 홍류동은 봄에는 붉은 꽃, 가을에는 단풍이 계곡에 흘러서 붙인 이름이지만, 최치원의 붉은 마음도 함께 흐른다. 홍류동에는 최치원이 남겼다는 「제시석(題詩石)」과 맞은편에 제시석 끝 문장에서 따온 농산정이 자리 잡고 있다. 최치원의 「제시석」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더욱 유명하다.

미친 듯 달려오는 겹겹의 돌들이
첩첩의 산들을 울리니 /
狂奔疊石吼重巒
사람 소리를 바로 옆에서도
분간할 수 없네. /
人語難分咫尺間
늘 세상의 시비소리가 귀까지
들릴까 두려워서 /
常恐是非聲到耳
그래서 흐르는 물로 하여금
산을 모두 둘러싸게 하리라. /
故敎流水盡籠山

농산정에 앉아서 홍류동을 바라보면 제시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 홍류동의 물이 콸콸 흐르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거의 들을 수 없다. 그런데 홍류동 농산정 건너편에는 최치원을 기리는 학사당이 있다. 학사당도 학사대와 같은 의미의 명칭이다. '학사(學士)'는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 재위 875~886)이 최치원에게 내린 시독(侍讀) 겸 한림학사(翰林學士) 수병부시랑(守兵部侍郎) 지서서감(知瑞書監)에서 유래한다. 학사당은 최치원이 이곳에서 죽었다는 가설아래 만든 사당이다. 사당 안에는 최치원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이곳 영정의 모습은 신선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최치원이 이곳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을 표현한 것이다. 최치원은 우리나라 유교, 불교, 도교를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선 전설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학사당은 세월의 무게와 후손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탓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경상남도 함양군의 학사루(學士樓)도 최치원을 기리는 곳이다. 함양의 학사루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천령군(天嶺郡), 즉 지금의 함양군의 태수를 역임한 인연으로 만들었다. 최치원은 함양 태수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숲이자 천연기념물인 상림(上林)을 조성했다. 상림 안에는 '문창후최선생신도비(文昌侯崔先生神道碑)'가 있다. 신도비는 죽은 자의 묘소가 있는 곳을 의미하지만 상림에 최치원의 묘소는 없다.

해인사 홍류동 학사당만큼 중요한 곳은 학사당 입구의 유허비와 전나무다. '문창후유허비(文昌侯遺墟碑)'는 이곳이 최치원의 발자취가 있다는 역사적 증거이고, 전나무는 최치원의 부활을 상징한다. 특히 이곳의 전나무는 학사당 홍도문(弘道門) 앞과 유허비 앞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최치원의 흔적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경주 낭산 자락의 독서당과 독서당 옆의 상서장, 부산 해운대 동백섬의 동상, 경상북도 의성군 고운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의 흔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중국 강소성 양주시에는 최치원기념관이 있다. 양주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시절 중요한 활동 공간이었다.

### 가야서당의 조각자나무와 농산정의 소나무

경주의 독서당이 최치원의 어린 시절 공부 공간이라면, 학사당 옆의 가야서당은 최치원이 만년에 제자를 가르친 곳이다. 가야서당의 기둥에는 제시석의 시 구절구절을 걸어놓았다. 서당에는 늘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지만, 입구 왼편에는 담장 옆에 한 그루 조각자나무 살고 있다. 콩과의 갈잎큰키나무 조각자나무는 학명(*Gleditsia sinensis* Lamarck)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원산이다. 조각자나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최치원이 중국 유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조각자나무는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십조를 기념하는 상서장 내에도 한 그루 살고 있다. 가야서당의 조각자나무는 경주 안강의 독락당 근처에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조작자나무에 비해 아직 어리지만 최치원을 상징하는 나무다.

농산정은 홍류동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농산정 뒤편에는 '고운최선생둔세지(孤雲崔先生遁世地)'라는 표석이 있다. 이곳의 소나무 숲은 농산정과 홍류동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러나 이곳 소나무 중에는 송진채취를 위해 껍질을 벗긴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다. 나는 이곳에 들릴 때마다 소나무의 상흔에 가슴시리다. 일제가 저지른 소나무 잔혹사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업이지만 관련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 전나무의 문화변용

전나무는 '젓나무'라 부르기도 한다. 젓나무는 이 나무에서 우윳빛의 액이 나와 붙인 이름이다. 전나무는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할 여지가 많은 나무다. 전나무를 의미하는 한자 회(檜)의 의미가 중국과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회'는 측백나뭇과의 향나무를 의미한다.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산동성 곡부의 공부(孔府)에는 공자가 직접 심었다는 향나무가 살고 있다. 반면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회를 전나무로 풀이한다. 일본에서는 측백나뭇과의 히노끼, 즉 편백나무다.

우리나라에서 회를 전나무로 수용한 사례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수륜면에 위치한 회연서원(檜淵書院)이다. 회연서원에는 오래 전 죽은 전나무 사진 자료가 남아 있다. 한강 정구(鄭逑, 1543~1620)를 모신 회연서원의 전나무처럼 정구가 제자를 가르친 경상북도 김천의 석곡서당 앞에도 두 그루의 전나무가 살고 있다. 이처럼 전나무는 중국의 향나무 대신 수용한 문화변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문화

# 전나무가 선사하는

# 한겨울의 로망스

## 크리스마스 트리 전나무

밤 한가운데를 거닐면 낮에는 미처 못 보았던 것들이 은은하게 말을 건네 오고,
밤 한가운데 서면 멀리 밤하늘이 가슴 깊숙이 들어와 안기는 것만 같고…
그렇게 밤에 취해 걷다보면 '전나무', 그 뾰족한 잎 끝에 맺힌 별빛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이다.



**'전나무'의 특별한 단장**

성탄절이 다가오면 괜히 들뜨다가도 지나버린 시간이 그리워지고, 괜히 슬프다가도 행복하게 지내온 날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겨울, 연말, 성탄절, 함박눈 그리고 밤. 괜히 마음 어딘가를 툭 건드리는 것들. 그중 온 몸에 따뜻한 조명을 두르고 겨울밤의 마음을 콕, 콕, 건드리는 '전나무'는 성탄절의 표상이다.

단순히 '나무'를 지칭하는 '트리'라는 글자 앞에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더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한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빛을 뿜어내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감성을 뒤흔든다. 여기에 눈까지 소복이 내려앉아 준다면 연말 분위기를 내는 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나무 중 '전나무' 일까.



나무에 장식하는 행위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 고대 이집트, 중국, 히브리인들에게 상록수는 생명력을 상징했다. 때문에 이들은 초록잎이 돋은 나뭇가지를 집안에 장식해 풍요를 기원하고 액운을 막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부터 그리스도교의 축일인 공현제(1월 6일)까지 집 주변을 상록수로 장식하던 관습이 있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리스도교와 게르만의 오래된 종교적 행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독일 궁정의 관습으로 도입된 후 18세기에는 요한하인리히 융, 요한 볼프강 괴테 등의 작품에 오늘날과 유사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습이 묘사된다. 이후 19세기부터는 부유한 시민까지 확대, 이후 일반 가정에서도 이러한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 '전나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침엽으로 콕, 콕, 마음을 건드리는 '전나무'**

전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대표주자로 쓰이는 이유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전나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유용하게 쓰인다. 한해를 갈무리하던 겨울 밤, 밖을 거니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목사가 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별빛에 비춰지는 숲, 그 아름다운 공간을 걸으며 마르틴 루터 목사는 커다란 감동을 느낀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아, 한 사람은 어둠 속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종교적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찰나의 감정, 찰나의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많은 이와 나누고 싶었던 마르틴 루터 목사는 '전나무'를 집으로 들여와 촛불로 그날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을 구현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날의 느낌을 전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전나무를 신성시한 켈트족의 이야기다. 옛날, 나무꾼과 그의 딸이 살았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소녀의 아버지는 숲에서 길을 잃는다. 요정은 그를 인도하기 위해 전나무에 불빛을 밝혔고, 덕분에 아버지는 집 앞까지 무사히 찾아갈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전나무를 트리로 사용했고, 트리에 조명을 달았다는 설이다.

이런 이야기건, 저런 유래건 '전나무'는 그런 존재로 사람과 함께 호흡하기 시작했구나, 생각해 본다. 선교사 오딘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마르틴 루터 목사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다. 그날 밤, 전나무가 침엽으로 콕, 콕, 건드린 것은 밤하늘뿐만이 아니었다. 그 섬세한 손가락마다 아름다운 별빛을 새기고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준 것이다. 그 손길에 감명 받은 한 사람이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연말까지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다.

Special

樅木

인포그래픽

# 사시사철

# 푸르고 곧은 전나무

## 전나무 정보

겨울이면 시린 하늘과 하얀 눈을 배경으로 늘 푸른 기상을 발산하는 전나무.
사시사철 내내 푸른 전나무의 진면목을 알아보자.

### 생육 특징




### 침엽수 삼형제



소나무
잎이 2개
길이 **8~9cm**

잣나무
잎이 5개
길이 **7~12cm**

전나무
잎이 1개
길이 **4cm**



###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 전나무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

독일에서는 상록수를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 신년이면 상록수 가지를 창, 천장에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다. 특히 전나무는 사계절 잎이 푸르러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적합했다. 트리에 장식한 소품은 풍요를 기원하고 악귀를 쫓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 전나무의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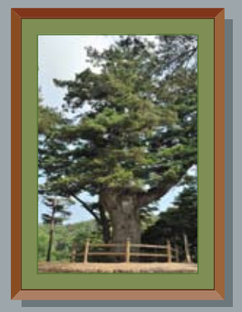



전나무는 솔방울처럼 온전한 모양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구과의 중심축을 남겨두고
실편과 종자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때문에 전나무 밑에서는 떨어진 열매를 찾을 수 없다.

### 천연기념물 전나무



**1**
2008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나무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2**
두 번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나무
제541호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 기둥으로 많이 쓰이는 전나무



여느 나무처럼 휘거나 마디가 많지 않고, 결이 곧고
쉽게 뒤틀리지 않아 사찰 기둥 · 대들보로 주로 쓰임

# 천 년을 살아가는 나무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바오밥나무는 세계에서 손 꼽히는 '큰' 나무다. 높이 20m, 가슴높이 둘레는 10m에 달한다. 척박한 아프리카 사막에 자생하는 바오밥나무는 최대 12만ℓ 이상의 물을 몸속에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수분 저장고'라고도 부른다. 큰 키의 경이로움만큼, 바오밥나무는 무척 신비한 나무다. 천 년을 살아가기 때문. 마다가스카르에는 천년을 넘게 산 바오밥나무가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풍광과 바오밥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마주할 수 없는 특별함을 선사해준다.

# 공중,

# 정원이 되다

## 행잉 가드닝

집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쉼터'이자, '안식처'다.
그러한 안식처를, 싱그럽게 단장하고 싶다면 '식물'은 더없이 좋은 소품.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테리어 효과는 톡톡히 높일 수 있는 홈 가드닝은 최근 들어 나이를 불문하고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가드닝을 즐길 방법은 없을까?
벽과 천장을 활용한 '행잉(hanging) 가드닝'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스타일링. 라비앙플레르

### 공중으로 간 정원

식물은 꼭 바닥에만 자리해야 할까? 고정관념만 깬다면, 모든 장소가 식물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천장'이 바로 고정관념을 깬, 해결책. 식물을 천장에 매단, 즉 '행잉' 가드닝이 주목 받는다.
행잉 가드닝의 첫 번째 매력은 '인테리어' 효과다. 시선이 늘 머무는 곳, 그곳에 행잉 가드닝을 실천한다면 공중 정원을 실현할 수 있다. 눈높이 위치에서 넝쿨처럼 주렁주렁 뻗은 식물은 나를 안식처로 데려가 준다.
두 번째 매력은 공간 소비가 적다는 것. 늘어난 1인 가구에게 안성맞춤의 인테리어 소품이 되어줄 것이다.

### 흙과 물없이 실천하는 행잉 가드닝

'틸란드시아'에 속하는 식물들이 행잉 가드닝에 가장 적합하다. 흙에 심거나 물에 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특히 틸란드시아를 키우는 데는 '흙'이 필요하지 않다. 흙 없이 나무에 착생해 사는 '공중식물'이기 때문. 그 종류만 해도 약 500여 개 정도라 한다. 줄기에는 미세한 솜털이 있는데, 바로 이를 통해 공기 중의 수분과 먼지의 양분을 먹으며 자란다. 그렇기에 틸란드시아를 노끈, 낚싯줄에 연결해 천장에 걸어두기만 해도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된다.
틸란드시아는 물 주기도 간편하다. 물을 준 후, 물기만 '탁탁' 털어내면 되기 때문. 물을 주는 횟수는 식물마다 차이가 조금 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만약 주변이 건조하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좋다. 분무기를 사용해 뿌려줘도 좋고,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 빼줘도 좋다.
각종 장식품을 곁들여도 좋다. 그 이상의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리 용기 속에 식물을 가꾸는 '테라리움'으로도 행잉 가드닝을 실천할 수 있다.

### 화분째 공중에 매달기

흙이 필요한 식물도 행잉 가드닝을 할 수 있다. 흙이 필요한 식물은 '화분'째 건다. 특히 자라면서 잎이 아래로 축축 늘어지며 자라는 것들이 예쁘다. 이런 식물은 바닥에 두는 것보다, 매달아 키우는 것이 더 멋스러움을 더한다. 스킨답서스, 아이비, 콩란, 에스키난서스가 대표적.
화분 대신 '이끼볼'을 이용해도 된다. 식물 뿌리를 배양토, 이끼로 동그랗게 감싸는 방식이다. 양치식물 '리코포디움'이 이끼볼을 이용해 행잉 가드닝하기에 좋은 식물이다. 박쥐를 닮은 양치식물 '박쥐란'도 좋다. 고유의 야생미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식물이든 행잉 가드닝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흙이 많이 필요한 식물, 물을 자주 줘야하는 식물은 피해야 한다. 흙은 화분을 무겁게 하고, 자주 물을 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행잉 가드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식물을 하나의 '소품'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먼저 우리 집의 온도, 습도, 통풍을 파악하자. 또, 키울 식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잘 알아야 한다.

**공중 식물 종류 및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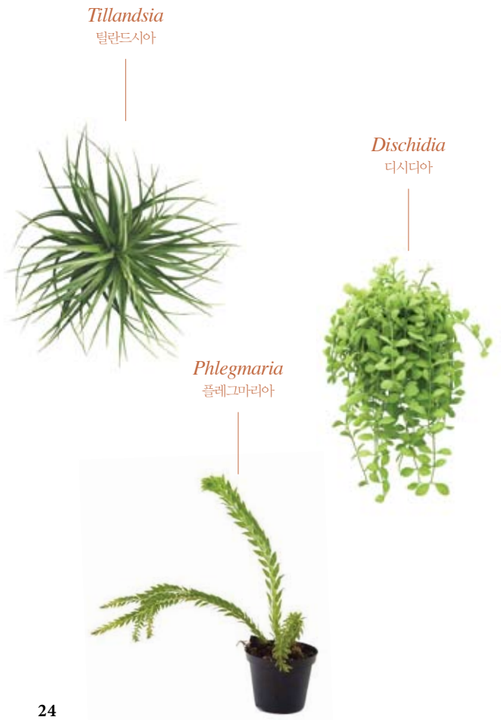
❶ **틸란드시아 :** 미세먼지를 먹는 틸란드시아는 공기 중의 수분과 먼지 속에 있는 미립자를 자양분으로 자라는 식물. 주 1회 받아놓은 물속에 1시간 정도 담가준다. 통풍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고 잎 끝이 타므로 직사광선은 피한다.

❷ **박쥐란 :** 직사광을 피해 밝은 그늘에서 키우고, 10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물속에 담가둔다. 약 15~18℃ 정도의 온도가 적절하며, 더운 여름에는 스프레이로 뿌려준다.

❸ **디시디아 :** 공기정화에 특히 좋다. 디시디아는 흙 없이 공중에서 기를 수 있다. 코코넛 껍질 등에서 주로 키우며 물을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다. 키우는 환경에 따라 2~3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 물을 준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둔다.

❹ **립살리스 :** 길쭉길쭉 독특한 잎 형태를 지닌 식물로 갈대 선인장이나 착생 선인장으로도 불린다. 형태가 가늘고, 선인장이지만 가시가 없는 립살리스는 반그늘에서 키워야하며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흠뻑 물을 줘야한다.

❺ **플레그마리아 :** 공중 식물로 사랑받는 석송 과의 식물 플레그마리아(*Lycopodium phlegmaria*)는 늘어진 모양새가 멋스러운 아이. 삐죽삐죽 가시같은 잎 모양 때문에 선인장 종류로 오해 받기도 하지만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로서 직사광선보다는 반음지에 놓고 공중 습도를 높게 유지해준다.




***Tip.***

**천장에 걸어두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소품을 활용해 벽면, 구조물에 매단다.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소품을 활용한다. 다용도 걸이, 옷걸이, 커튼봉, 파티션 등이다. 구멍이 뚫린 타공 철판, 소품용 나무를 활용하면 식물의 조형미를 살릴 수 있다.

**화기와 흙은 어떻게?**

화기는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흙은 가벼운 것이나 마사토가 좋다. 물을 적게 줘도 되는 선인장, 반대로 물을 오랫 동안 머금어도 괜찮은 식물을 선택한다.



## 마끈(면끈)을 이용한 간편한 행잉 플랜트 만들기

***How to make***

만드는 법



재료 : 고리, 면끈, 가위, 줄자, 화분



안 입는 면티를 잘라 8가닥의 긴 끈으로 만들어준다.



8가닥의 끈을 고리에 연결하여 매듭을 지어준다.



20cm정도의 길이를 남겨두고 두 가닥씩 매듭 지어준다.



매듭의 한 가닥을 옆 매듭의 한 가닥과 매듭지어준다.(매듭의 간격은 5cm정도, 화분의 크기에 따라 총 2~3번 반복한다.)



마지막 전체 매듭을 지어준다.



# 건축의 본질, 건물 아닌

# 그 안의 ‘공간’

## < 빈자의 미학 > 다시 펴낸 승효상 건축가

건축 포화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건물이, 땅 이곳저곳을 밟고 서 있는 지금이다.
과거부터 많은 건축물은 각자의 목적에 맞춰 세워지고 또 허물어지길 반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워’지고 ‘헐리’는 건축의 반복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승효상 건축가를 만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은 그다.
건축의 방향성은 ‘무용(無用)의 공간’ 이라는 그의 답변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내 알도록 한다. 무언가 ‘존재하는’ 공간보다, 무엇이 ‘존재하길’
기다리는 공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 건축, 쌓는 것보다 비우는 게 중요한

건축(建築).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된 말. 그 뜻을 풀어보면 일정한 구조물을 목적에 따라 세우거나 쌓는 일을 가리킨다. 때문일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축'이란 항상 무언가를 '쌓는' 일로 여겨졌다.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벽돌을 쌓는 일. 하늘을 향해 높이 쌓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지금 시대의 건축은 '용도' 보다 '높이'에, '쓸모' 보다 '미학'에 더 치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든 '존재' 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마련이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의 함정은, 어느 순간 자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자각한다는 점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본래의 용도와 목적을 잃고 만다. 승효상 건축가는 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무용(無用)의 공간'을 이야기 했다.

"무용의 공간이란, 결국 사용하기 위해 비워놓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같은 거죠. 스마트폰을 보면 바탕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터치하는 순간 원하는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전통 가옥 형태에 있는 '마당' 도 무용의 공간입니다. 다른 나라의 마당과 달리, 우리나라 마당은 정말 신비로워요. 뭘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어른의 일터, 아이들의 놀이터, 마을 사람들의 축제의 장 등 다양하게 변신하죠. 제사도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다시 비워집니다. 다시 무(無)의 상태가 돼서 거주자가 사유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비어 있는 공간은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잠시 무용의 공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건축' 이라는 목적 아래 구조물을 마구 쌓아올리는 것보다 적절히 비워두는 게 더 중요한 이유다.

### 신(神)을 알고 싶었던 남자, 건축을 파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건축물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유려하고 색다른 구조물이 '더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승효상 건축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다. 그의 철학은 확고했다. 건축은 공간이라는 것.

근본적인 생각, 근원에 대한 고찰이다. 그는 건축을 대하는 태도와 출발점부터 다르다. 사람들은 승효상 건축가의 이러한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 '근본부터 사유하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의 '근원부터 생각하는' 습관은 어린시절부터 이어온 것인지 모른다. 본래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청년. 하지만 누님의 권유로 건축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자 했을 때 갖고 있던 시선을 고스란히 건축에 대입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인지 누님께서도 저한테 건축가가 되면 어떻냐고 권유하신 것 같아요. 뭐든 금방 배우고 습득했으니까요. 그렇게 건축가로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네요. 집에서 신학자가 되는 걸 반대해 건축가가 됐는데 공부하다보니 신학이나 건축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간 존재에 관한 분야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건축을 공부할수록 사람들이 건축을 잘 모른다는 걸 느끼게 됐다. 건축의 본질은 공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물건처럼 본다는 것이었다. 생김새, 모양, 장식, 크기 등 큰 조각물로 보는 게 전부더라, 는게 그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건축의 본질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건축을 제대로 보려면 벽이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의 공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헌데 설계하는 건축가들도 잘 못보는 경우가 많아요. 축조는 결국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쌓는 거죠. 때문에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간에서 영유되는 거주자의 풍경'이다. 공간을 사용할 거주자가 어떤 환경, 어떤 정황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건축이 좋은 건축이라는 것이었다.

"거주자에 따라 공간에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볼 수 있길 원하고, 누군가는 저녁에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싶어해요. 또 누군가는 넓은 거실을, 혹은 안락한 침실을 원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애정, 존경, 그리고 진심이 없으면 좋은 건축이란 존재하기 어렵죠."

### 결국 땅을 이해해야 하는 일

결국 땅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건축이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이 그 건축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이 선순환이 제대로 지켜지면 자연과 건축, 그리고 사람은 한 데 어우러질 수 있게 된다.

"지금의 도시 안에서 우리가 자연을 느끼기 어렵다고 여기는 건, 서양 건축구조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서양 역사와 문화에서 자연은 곧 적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죠. 때문에 모든 건축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은 게 바로 그런 이유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자연이 있어야 인간의 사이가 맺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고을을 만들 때도, 건축이 자연 속에서 숨 쉬게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가옥에서 그가 강조하는 건 '열린 구조'다. 자연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마당, 대청마루 등 우리 선조는 열린 구조를 자연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 승효상 건축가는 "건축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이라며 "그게 바로 우리의 가옥 구조가 갖는 미학"이라고 강조했다.

"나라마다 다른 건축양식을 갖는 이유는 땅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땅이 갖는 생리와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도시 안에서도 터의 생김새가 모두 다른데 나라마다는 어떻겠어요. 살면서 생긴 문제가 다르다보니 그 무늬를 보고 새로운 무늬를 덧대는 거죠. 모든 땅은 다 이야기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있어요."

땅이나 건축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 것. 사용권과 소유권을 절대 혼돈하지 말 것. 승효상 건축가가 강조한 이야기다. 공동의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만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공공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옆집과 내가 관계없는 게 아니거든요. 옆집 사람도 우리집을 보고 영향을 받고, 나 역시 옆집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에요. 이걸 위배하면 나쁜 건축이 되죠. 땅은 한 명의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개인이 죽을 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보다 먼저 있고 사람보다 오래 남는 게 바로 땅이죠. 우린 그걸 잠시 빌려 사용할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건축은 항상 새로운 작업이라는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땅과 만나는 일이기에 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다는 그는, 매일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늘 '새로움'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배반하는 게 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 뭔가를 항상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도시가 다양한 삶의 집합체라면,
건축 역시 그 삶의 한 공동체이다.
그 삶이 단속(斷續)적이지
않은 것과 같이
건축 역시 도시에 대해
닫혀있지 않아야 한다.

1.
승효상 건축가는 건축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무용(無用)'의 공간을 이야기한다.

2.
그는 최근 절판됐던 〈빈자의 미학〉을 다시 펴냈다.




2.

1.




*profile*

승효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다. 15년간, 김수근 선생 문하를 거쳐 1989년 건축 사무소 이로재(履露齋)를 열었다. '빈자의 미학'을 철학 삼아, 꾸준한 작업에 매진 중이다. 수졸당(1993), 수백당(1998), 웰콤시티(2000)등으로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약초도감

# 돌아오시라 마음 담아

# 사랑하는 임에게

## 당귀

당귀(當歸)는 왜 당귀인가 했더니, '마땅히 돌아온다'는 이름이다. 이름 한 번 참 애달프다.
어찌나 보고 싶은 마음이 크면 온 몸에 그 뜻을 두르고 살아간단 말인가!
그 옛날 아낙들은 전쟁터로 가는 남편에게 꼭 당귀를 챙겨주었더란다.
사랑하는 임, 몸 건강히 꼭 돌아오시란 마음을 담아.

감수. 전권석 박사(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고마운 당귀



최표(崔豹)는 『고금주(古今注)』에서 "옛 사람들은 작약(芍藥)으로써 서로 이별하였고, 문무(文無)로써 서로 붙들었다. 문무는 일명 당귀(當歸)로써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며, 작약은 일명 장리(將離)로써 장차 헤어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름에 담긴 애틋한 사연만큼이나 사람의 몸에 이로운, 대표적인 약용 식물 당귀. 산에서 채취해야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직접 길러 재배하기도 한다. 당귀의 뿌리와 잎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한약 냄새를 즐기는 이들은 잎을 따 쌈 채소로도 많이들 이용한다. 연한 당귀 잎을 뜯어 상추쌈에 곁들이면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가을에는 뿌리를 캐서 술을 담그거나, 한방 영양제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당귀를 약용으로 재배하려면 꽃대를 키우지 않고 수확해야 한다. 즉, 여러해살이풀이지만 약초용으로 쓸 때에는 꽃이 피기 전에 모두 캐야 한다는 것이다.

당귀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성에게 특히 좋다. 생리불순, 불임증, 산후통, 젖몸살 등의 부인병에 특효약이다. 또한 뭉쳐있는 어혈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개선시킴으로써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지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귀는 체내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 혈액을 생성해내고, 나쁜 피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본경(本經)』에서 당귀는 심한 기침으로 기가 위로 솟구치는 증상이나 피부가 오싹한 증상, 종기나 부스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끓여서 즙을 마시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별록(別錄)』에서는 속을 데워주고 통증을 멎게 하며 땀이 나지 않거나 몸이 저릴 때, 몸이 차고 허한 증상을 치료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위장운동을 촉진시켜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없애는데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데크루신과 데크루시안젤레이트 성분 함유로 뇌에 독성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치매 예방에도 좋다.

'Angelica', 라틴어로 'angelus'. 즉 '천사'라는 뜻의 당귀의 또 다른 이름은 역병이 번졌던 과거 수도사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이 식물의 약효를 전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는 당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유익하게 쓰였다는 것일 테다.

### 씩씩한 당귀

당귀는 별도의 수확시기가 있다기보다는, 대체로 봄에 파종해 가을에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 모두 캐서 이용한다. 봄에 일찍 씨앗을 파종하면 4월 말쯤 싹을 틔운다. 처음엔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려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다른 풀에 묻혀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 시기만 보내고 나면,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한다. 줄기도 쭉쭉, 잎도 넓게 쫙쫙 펼쳐 장마철도 거뜬히 이겨내고, 가을이 되면 다시 보드라운 새잎을 키워낸다. 이때 보드라운 잎을 수확해 쌈 채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용하다. 꽃을 보거나 씨앗을 받을 욕심이 있다면 몇 포기쯤 그냥 두어도 좋다. 씨앗은 2~3년 정도 지난 줄기에서 받아야 질 좋은 당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당귀는 잎에서 강한 향기를 내므로 벌레가 접근하는 일이 거의 없다. 때문에 초기 성장기에만 관심을 기울여주고, 주변에 돋아나는 풀만 잘 정리해주면 재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 *How to eat*
어떻게 먹을까

당귀 차 만들기



**1.** 11~12월에 2년 자란 당귀 뿌리를 채취한다.

**2.** 따뜻한 물에 씻은 후 50℃ 가량의 물에 10분간 담가 둔다.

**3.**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3월까지 건조해준다. 다 마른 당귀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4.** 당귀 30g에 물 2L 넣어 끓인다. 물이 끓으면 약불로 조절한 후, 30분가량 더 끓여준다. 건더기는 버리고 달인 물만 냉장 보관한다.

어떤 날 숲

# 우리의 청춘은 너희가 있어

# 언제나 현재 진행형

## 서울 낙산공원

눈빛만으로도 '통'한다는 세 명의 친구가 손을 잡고 걸었다.
겨울의 찬바람도 우정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달아난 하루였다.



**우정 더하기**

웃는 '소리'부터가 꼭 닮았다. 누구 하나가 '하하하' 웃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하하'하고 따라 웃는다. 또 다른 하나가 '히히히' 하고 웃으면 또 다른 누군가 '히히히' 하고 따라 웃는다. 그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꼭 닮았다. 멀리서부터 왁자지껄한 모습에 누가 봐도 '절친'임을 인증한다.

"대학교 과 동기로 서로 친구가 됐어요. 컴퓨터 과목 시험을 보는 날인데, 서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다가 친구가 됐죠."

마음 맞는 친구가 하나에서 둘이 되었고, 또 둘에서 셋이 됐다. 그렇게 오순도순 모인 이수연, 이진주, 장희애 씨는 모처럼 학창 시절의 낭만을 떠올리며 서울 낙산공원을 함께 걸었다. 겨울임에도 제법, 포근한 날씨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리고 포근하게 내리쬐는 햇볕 덕분에 걷는 내내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느끼는 온도는 이들이 뿜어내는 우정의 열기이리라.





1.
2.

## 낙산 성곽길, 그 역사의 길을 걷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낙산(駱山)'. 낙산은 서쪽으로 인왕산과 동서로 마주한, 해발 125m의 나지막한 산이다. 산 전체가 돌산이며, 그 생긴 모양이 낙타의 등처럼 생겨 '낙타산'으로도 불린단다.

낙산은 옛날 도성 5대 명승지에 이름을 올렸을 만큼 그 모습이 무척이나 수려하다. 조선 시대 문인들은 이곳에 별장을 짓고 살았을 만큼, 낙산의 풍경을 좋아했단다. 조선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은 낙산에 '석양루'를 지어 해지는 풍경을 감상했고, 영조 때 문인인 이심원은 '일옹정'을 지어 이곳을 자주 찾았단다. 현재는 낙산 주변으로 오밀조밀하게 주택이 몰려있지만, 성곽을 따라 옛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낙산은 상당 부분 소실되기도 했었다. 2002년,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환경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낙산공원은 역에서도 가까워 찾기 쉬운 공간이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와 약 10분 남짓. 시끌벅적한 골목을 누비고, 꽤나 경사가 높은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이내 낙산공원에 다다른다. 쉬엄쉬엄 걸어도 20분이 채 되지 않아도 정상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산은 낮고 길은 평탄하다.



1.
서울 성곽길로 유명한 낙산공원. 전망으로 오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언덕을 이용하거나 계단으로 오르거나. 어느 길로 가든 힘들이지 않고 정상까지 다다를 수 있다.

2.
낙산공원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 전망. 성곽길을 따라 이십여 분을 오르다 보면 금세 정상에 도착한다.

3.
서울 성곽은 조선 개국과 함께 축조된 사적 10호다. 낙산에서는 동대문~혜화문을 연결하는 성곽이 산책로와 복원돼 있어, 산책은 물론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다.

**낙산공원**

주소 : 서울 종로구 낙산길 41
문의 : 02-743-7985

"평소에 운동 좀 해둘걸. 힘들기 시작했어!" 야트막한 산이지만, 세 친구에게는 경사가 꽤나 가파른가보다. 오르는 내내 탄식 섞인 목소리가 흘린다. 좁은 길을 오를 때도 셋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혹은 허리를 휘어 감고 낙산을 '사이좋게' 올랐다.

낙산은 여러 얼굴을 가졌다. '서울 성곽'을 따라가며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기 때문. 서울 성곽은 조선 개국과 함께 축조된 사적 10호다. 낙산에서는 동대문과 혜화문을 연결하는 2.1km의 성곽이 산책로와 함께 복원돼 있어, 산책은 물론 역사를 깊이 있게 성찰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낙산공원에서는 서울의 모습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높은 곳까지 오르는 수고스러움이 없으니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정상에 다다르지 않아도, 시야가 훤하게 펼쳐져 있어 서울 시내를 바라볼 수 있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오두막, 벤치, 운동기구도 준비돼 있다. 늦은 오후 시간이었지만, 많은 시민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혹은 운동을 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낙산공원 성곽길은 성 안쪽과 바깥 쪽에 길이 모두 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을 켜 놓는데, 성벽에 은은하게 비치는 불빛 덕분에 밤에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다고. 성벽 바깥쪽 성곽길은 창신동, 삼성동으로 이어진다.

**함께 걷는 길**

낙산은 정말 평이한 등산로 아니, 산책로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단골 시민들이 많다. 정상에 다다르자 세 친구는 감탄사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림 같다는 얘기는 이럴 때 쓰는 거네!"라는 말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절로 나온다. 한눈에 조망되는 서울, 옛 조선인의 정취가 남아있는 성곽길 그리고 친구 세 명. 그 모습이 어울리지 않을 듯하면서, 또 다른 조화를 이루어낸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셀카' 찍기에 여념이 없다. 성곽길의 의미를 되새길 겨를도 없이, 갖은 포즈와 표정을 지으며 세 친구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그 모습은 '청춘'의 표상. 해맑음, 풋풋함, 귀여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그들의 청춘과 비교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시선 닿는 곳마다 탄성이 나오는 곳. 세 친구는 나란히 서서 성곽의 아름다움을 음미했다. 찬 바람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세 친구의 우정, 씩씩하게 걸으며 도란도란 나누었던 우정의 의미. 그렇게 성곽길에 서서 세 친구는 모처럼 서울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다시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갈 세 친구. 어느 날 문득 "거기 참 좋았지"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손뼉을 마주칠 세 친구에게 오늘 또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다. 오늘 핸드폰 속에 저장된 사진이, 지치고 피로한 어느 날 그들의 우정만큼이나 따뜻한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3.



그린테이블

# 뚝딱하고 만드는

# 제철 반찬

## 더덕 · 석이버섯

제철 임산물로 만드는 요리는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명약이 된다.
더덕과 석이버섯으로 '뚝딱'하고 만드는 겨울 제철 반찬 요리.

요리 & 스타일링. 김보선



***Tip.***

더덕을 끓는 물에 데쳤다 찬물에 헹군 뒤, 칼을 이용해 살살 긁어내면 껍질을 쉽게 벗겨낼 수 있다. 더덕을 잘게 두들길수록 양념이 깊이 스며들어 더욱 맛있는 무침을 만들 수 있다.



### 고추장 황태채 더덕무침

**재료**

더덕 150g(약 4 뿌리), 황태채 ½줌(20g), 참기름 ½큰술, 간장 ½큰술
양념장—고추장, 청주 1큰술 씩,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 간장 ½큰술씩, 설탕 ⅔작은술, 후추 약간

**만들기**

**1.** 더덕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껍질을 깐다.
**2.** **1**의 더덕을 먹기 좋은 길이로 썬 다음 길이를 살려 세로로 반 가른 뒤, 밀대를 이용해 두들겨 편다.
**3.** 황태채는 물에 살짝 적신 다음 그대로 20분간 불린 뒤, 손으로 물기를 가볍게 짠다. 여기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가볍게 무친다.
**4.** 마른 팬에 **3**을 넣고 가볍게 볶은 뒤, 볼에 더덕과 양념장을 함께 넣고 가볍게 무쳐 완성한다. 송송 썬 쪽파를 올려 완성한다.

### 석이버섯 감자조림

**재료**

석이버섯 50g, 감자 3개, 꽈리고추 10개, 물 ½컵, 간장 5큰술, 설탕 1큰술, 물엿 2큰술, 포도씨유 약간

**만들기**

**1.** 석이버섯은 물에 불린 뒤 버섯 뒤에 낀 이물질을 손으로 긁어 떼어낸 다음, 돌기 부분도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뜯는다.
**2.** 감자는 껍질을 깎아 한입 크기로 도톰하게 썬 다음, 물에 10분간 담가 전분기를 제거한다. 꽈리고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하게 썬다.
**3.** 달군 냄비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감자를 넣어 중간불에서 볶아 감자 가장자리가 투명해지면 간장과 물, 설탕을 넣고 조린다.
**4.** 감자가 거의 다 익어가면 꽈리고추와 물엿과 석이버섯을 넣고 한소끔 끓인 뒤, 불을 끈다.

***Tip.***

석이버섯은 종이처럼 얇고 마른 상태에서 유통된다. 물에 불리면 부드러워지는데 뒷면에 이끼나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살살 긁어 제거하도록 한다. 얇아서 금방 익기 때문에 요리 후반부에 넣도록 한다.





1.



2.

1.
청도감와인(주)는 약 100년 동안 버려진 터널을 와인터널로 재탄생시켰다.

2.
그 전에는 감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것들로는 곶감, 말랭이, 식초가 전부였다. 이감수 전무는 직원과 합심해 감을 활용해 감와인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숲에서 자라는 가치

# 감이 익고

# 또 다시 익는 꿈의 터널

## 청도감와인(주)

감은 우리에게 둘도 없이 친숙한 과일이다. 사과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한 과일이라면 감은 동양권, 그중에서도 한반도에서 특히 많은 의미를 부여받은 과일이다.
호랑이를 물리친 곶감도 그렇거니와 겨울이면 어김없이 남겨놓는 까치밥도 감이며 '달다'는 뜻의 甘자의 독음 역시 감이 차지했으니, 애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을 어떻게 먹어왔을까? 그대로, 혹은 곶감, 아니면 말랭이, 아니면 식초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이 '오래된 레퍼토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탄생한 아주 새로운 무언가가 말이다.

### 버려진 터널에서 만난 '가능성'

부산대구간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청도IC를 통해 국도로 접어든 지 10분 남짓. 그리 넓지 않은 길을 달려 도착하게 된 곳은, 나무로 문을 짜 세워놓은 터널 앞이었다.
"1896년 일제가 착공해 1904년 완공된 터널입니다. '옛 남성현 철도터널'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약속시간에 맞춰 도착한 청도감와인(주)의 이갑수 전무는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 터널까지의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 당시의 기관차로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래쪽에 새로운 터널을 다시 만들면서 이곳은 그냥 방치가 되었죠. 철로도 모두 철거해 갔으니 동굴과 다름없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버려졌던 터널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도록 고여 있었고 천장에는 박쥐들이 매달려 있었으며 반대쪽에서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지만, 청도감와인(주)의 임직원들은 이곳을 끝까지 '탐험'했다. 그리고 와인 숙성에 적합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터널과 멀지 않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턱도 없는 소리 한다"며 혀를 찼다. 그러지 않았으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감으로 와인을 만든다는 말은, 버려진 터널에 와인 저장고를 만든다는 말만큼이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다.



"발효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과학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발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롱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발효시킬 것인가. 저희는 우선 식초에 주목했습니다."
식초는 인류 발효 역사의 시발점이기도 한 식재료이자 약이었다. 기원전 5천 년에 이미 바빌로니아에서 건포도를 이용해 식초를 만든 기록이 있고 기원전 4천 년에는 히포크라테스가 환자에게 식초를 처방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식초가 바로 와인의 다음 단계입니다. 즉 포도나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로 와인을 만든 후 그것을 다시 발효, 숙성시키면 식초가 되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감은 어떨까요? 감은 식초가 되기 정말 쉬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와인이 되기는 정말 힘든 과일이기도 하지요. 떫은맛이 워낙 강하거든요. 발효의 최종단계인 식초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떫은맛이 모두 사라지지만, 그 전 단계인 와인에서는 이 떫은맛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갑수 전무는 "그래서 회사의 구성원들은 도전해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성공했을 때 돌아올 보상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전혀 새로운 것, 모방하기 쉽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만으로도 진입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자, 이제 실행만 남았다.

### 기다린다는 것, 그 '맛있는' 의미

청도감와인(주)에게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접시를 닮아 납작한 반시(盤柿)와 약 100년 동안 버려졌던 터널, 그리고 신념이 있었다. 그것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포도로 만든 일반적인 와인에서 바디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타닌입니다. 그리고 감은 타닌 덩어리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떫은맛이 모두 이 타닌으로부터 나오는 데다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타닌을 모두 제거하면 맛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존재하되, 그것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게 무엇보다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감의 발효 시기에 맞춰 3번이나 여과해야 했고,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 5년이 걸렸다. 일반적인 필터로는 타닌을 모두 제거할 수 없어 미생물까지 걸러낼 수 있는 특수 마이크로필터를 사용해야 했다. 그렇게 연구와 개선에 매달린 시간만 10년이었다.

3. 2003년 와인을 개발하고, 2006년 터널을 개장했다.

4. 와인터널은 연중 13~15℃를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5. 감와인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데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완성한 감와인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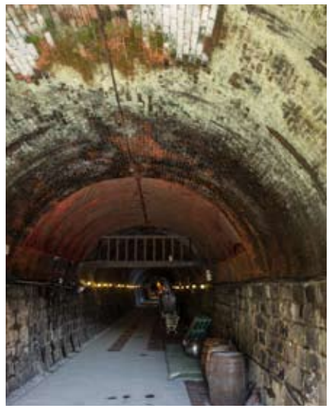
6. 와인의 맛을 숙성시키는 두 가지 요소는 저장고인 셀러와 양조장인 와이너리다.

**3.**



**5.** **6.**








**4.**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2003년에 와인을 개발하고, 2006년에 터널을 개장한 후 2007년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당시의 와인은 여전히 포도로 만든 정통 와인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기술과 시설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때 마침 산림청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9년 산림청의 공모사업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 도움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도 2차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감 와인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시설이 새롭게 확충되었습니다. 그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신식 설비를 갖추게 되니 자연스레 품질도 높아졌고요. 산림청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을 일입니다."

물론 그 지원이 모두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1차 지원 때에는, 포도가 아니라 감으로 와인을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임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독창적인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그리고 2차 지원 당시에는, 이제 궤도에 오른 감 와인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더 다양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 지금의 모습으로 반짝이는 와인 터널은, 이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연중 13~15℃를 유지하는 터널의 특성 덕분에 특히 여름과 겨울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근래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당연히 청도감와인(주)은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더 깊은 곳에서 익어갈 또 다른 꿈을 발효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와인의 맛과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저장고인 셀러와 양조장인 와이너리입니다. 셀러는 지금까지 이곳 와인터널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만 와이너리는 그렇지 못했지요. 하지만 산림청의 지원을 받은 덕분에 이제 그 두 곳을 연계시키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께서는 감 와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관심으로 인해 이곳 청도의 반시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 중에 유일하게 씨가 없는 이곳 반시를 직접 따보는 체험을 하거나 반시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구입하실 테고요. 그렇게 되면 이곳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갑수 전무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인근 지역에서 재배되는 반시는 100% 수매 중이란다. 감의 품질이 좋아야 와인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저농약 재배 등 감의 품질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고, 거두어지고, 발효되는 청도의 반시는 와인이 되어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익어갈 것이라 했다. 와인터널을 찾는 사람들의 모든 희망과 바람이 완전하게 익을 때까지 말이다.

**청도감와인(주)**



위치 : (38323)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길 100
문의 : 054-371-1904

● 체험 프로그램

**1.**
**와인 만들기**
감와인 원액을 직접 병입, 코르크 막기, 캡슐 씌우기를 해볼 수 있다.





**2.**
**와인 시음**
감와인과 와인터널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캠핑

# 캠핑 & 여행

## 그 일석이조의 즐거움

### 마지막. 캠핑 두 배로 즐기는 방법

캠핑과 여행! 참 궁합이 잘 맞는 활동이다. 캠핑장 안에서 하루종일 머물면 낮에는 심심하다.
그 심심함을 여행이 채워준다. 또 콘도나 펜션에서 머물면 집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서 밋밋하다.
그 밋밋함에 캠핑이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비싼 숙박비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글. 안윤정(캠핑작가)

글. 안윤정(캠핑작가)



**캠핑, 여행을 동시에 알차게 즐기는 방법**

캠핑 스타일의 윤곽이 잡혔으면 이제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캠핑하면서 접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활동은 바로 '여행'이다. 또 여행을 하다가 캠핑이 접목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즐기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모양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일단 캠핑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 즐거움도 두 배이지만 몸도 두 배로 바빠진다. 가능한 장비를 줄여서 설치와 철수를 간단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음식도 쉽고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낮에는 돌아다니며 관광지 주변에서 그 지역 음식을 먹어보길 권한다. '여행'에는 '식도락'도 큰 몫을 한다.

캠핑과 여행을 함께 하면 돌아다니면서 많이 걷게 된다. 그러므로 피곤할 수 있다. 그 피곤함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 동선을 알차게 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장거리를 이동한다면 그 피곤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능한 베이스캠프로 잡은 캠핑지에서 20~30km 내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한 코스는 가족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 해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동의 정도는 다르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는 자연경관은 움직이지 않는 배경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연경관 위주의 코스는 아이에게 극도의 지루함만 안겨줄 수 있다. 박물관이라든가 체험코스 등을 적절히 넣어서 아이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가족 상황에 맞는 캠핑&여행 컨설팅**

자신만의 캠핑 스타일이 있듯이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각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몇 가지 예를 통해, 그 모습을 살펴보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본다.

1. 어린 아이와 함께 캠핑을 한다면, 체험이 있는 캠핑 코스가 좋다.

2. 하얀 눈이 내린 숲, 아이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적절하다.

3.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캠핑장이 좋다.

1.



2.

3.







***Type 1.***

**여행을 자주 즐기나 캠핑은 처음인 신혼부부**



흔히 여행을 하다가 숙박을 텐트로 바꾸는 경우이다. 이미 배낭여행 등으로 여행에는 익숙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캠핑'만 여행과 잘 접목시키면 된다. 여행을 위한 캠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비는 여행에 알맞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오토캠핑이 아니라 미니멀이나 백패킹에 맞춰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다. 아직 아이가 없으므로 둘만의 낭만적인 섬 여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등도 가능하다.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한 후에 그 지역 안의 적절한 캠핑지를 찾아보자. 첫 잠자리가 편해야 다음에도 텐트를 치고 싶을 것이다. 각 지역의 휴양림이나 국립공원 야영장 등 자연경관도 좋으며 관리도 잘 되는 곳을 찾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차차 캠핑에 익숙해질수록 자연과 더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맞춤 코스 제안〉

강원 정선 화암약수 야영장 + 화암동굴, 병방치 스카이워크, 정선5일장 등
강원 삼척 검봉산 휴양림 야영장 + 장호항, 덕풍계곡, 해양레일바이크 등
경북 울진 통고산 휴양림 야영장 + 소광리 소나무숲, 불영사, 불영계곡, 죽변항 등
전남 장성 가인 야영장 + 백양사 단풍, 축령산 편백나무숲, 문수사 등

***Type 2.***

**캠핑 경력 1년의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



일반적으로 오토캠핑 경력이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캠핑에 익숙해지는 시기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냄새 걱정 없이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캠핑을 시작한다. 하지만 슬슬 반복되는 캠핑장 활동 패턴에 지겨워진다. 지금이 캠핑장 밖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먼저, 오토캠핑 장비들이 있으므로 따로 여행을 위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장비는 그대로 활용하고 다니던 오토캠핑장도 그대로 고수해도 좋다. 단, 지금부터 캠핑장 주변의 볼거리, 특히 아이들의 체험거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 제철 여행지를 찾아가 아이들이 계절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좋다.

〈맞춤 코스 제안〉

경기 양평 설매재휴양림 야영장 + 딸기따기 체험, 두물머리, 곤충박물관 등
강원 춘천 용화산 휴양림 야영장 + 물레길 카누체험, 애니메이션 박물관, 막국수체험박물관 등
강원 강릉 대관령 휴양림 야영장 + 양떼목장, 오죽헌, 경포해변, 참소리/에디슨 박물관 등
충북 충주 햇살아래체험농장 캠핑장 + 말타기 체험, 충주무술박물관, 중앙탑 공원 등
전북 무주 덕유대 야영장 + 무주구천동 계곡,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Type 3.***

**캠핑 경력 5년의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족**



캠핑 경력도 오래됐고 아이도 컸으므로 캠핑 스타일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제 아이는 급성장하여 오토캠핑장 안에서만 머물기에는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 더 모험심을 자극해도 좋다. 부모와 함께 산행, 트레킹을 하거나 같이 등짐을 메고 섬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일단 캠핑 스타일 전환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장비의 대대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짐의 무게를 줄이고 부피도 작아져야 한다. 백패킹을 할 경우, 가족별로 짐을 분산하므로 각 구성원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산정하고 장비를 꾸려야 할 것이다.

〈맞춤 코스 제안〉

강원 인제 방태산 휴양림 야영장 + 곰배령 야생화,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 등
전북 남원 지리산 뱀사골 야영장 + 지리산 둘레길, 뱀사골 탐방 등
경북 청송 상의 야영장 + 주왕산 산행, 주산지 등
제주도 모구리 야영장 + 용눈이 오름, 우도 트레킹, 섭지코지, 비자림 등

# 잠깐의 웅크림으로

#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 <6화> 산촌에서 겨울나기

어느덧 목인동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서리 맞은 꽃 모둠을 보러 길을 나섰습니다.
뽀드득뽀드득 언 땅을 밟을 때 나는 소리와 해뜨기 전 산촌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이 저는 참 좋습니다.

글. 이용길

**산촌일기**
겨울을 맞이하는 산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번 호에서는 겨울을 준비하는 이용길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산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산촌일기〉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 유난히 긴 산촌의 겨울

아마도 많은 분이 산촌에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날지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산촌의 겨울은 유난히 깁니다. 10월 초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듬해 3월까지 꽤 추운 날씨가 지속하죠.
현재 사는 집은 압축 황토벽돌로 지어 단열이 잘됩니다. 황토벽돌의 압축 강도도 높고, 두 줄로 쌓아 외벽 두께가 35cm 정도 되어 외부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줘요. 다만, 사방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 많아 열 손실이 많은 편입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두툼한 이중유리창으로 시공할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귀산 초기에는 기름보일러에 의존해 겨울을 보냈는데, 연료비가 많이 나와 현재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촌에서 땔감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상 중 하나예요.
물론 귀산 초기에는 땔감 마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계톱을 사용하기가 두렵기도 했고, 트럭도 없이 무작정 간벌한 나무를 들고 오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녔죠. 물론 지금은 기계톱도 제법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고, 사륜구동 트럭을 이용해 더욱 쉽게 땔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땔감이 준비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밤중에도 보일러 온수가 얼지 않도록 밤하늘의 빛나는 별과 달을 보며 지속해서 불을 지펴야 하죠. 한겨울에는 보일러 온수가 쉽게 얼어요. 한 번 온수가 얼면 다시 녹이는 데 많은 힘이 들고 마음고생이 큽니다. 그래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는 특별히 보일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도 나무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축복 아닐까요?





1.



1.
산촌의 겨울은 나름 바쁘게 돌아갑니다. 소나무 전정, 잡목 정리 등 할 일이 무척이나 많죠.

2.
산촌에서 땔감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3.
겨울에도 방학을 맞이해 체험활동을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4.
〈산촌일기〉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겨울은 사람에게도 추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식물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 월동이 안 되는 식물들을 화분에 담아 실내에 들여놓아야 하고, 추위에 약한 어린나무들은 짚으로 피복을 입혀 겨울을 납니다. 지피 식물의 경우 왕겨를 깔아주기도 해요. 또한, 겨울은 소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를 전정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정하면 수형을 좋게 기를 수 있거든요.

**심심할 틈 없는 산촌의 겨울**

산촌의 겨울은 그런대로 여유롭지만, 그렇다고 마냥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나무 전정, 잡목 정리 등 할 일이 무척 많죠. 그리고 구절초 꽃차 판매 마케팅,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펜션 홍보 등 주로 홍보 및 마케팅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봄부터 가을까지 그동안 너무 바빠 소홀했던 부분들을 챙기고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창 목인동 생태체험마을을 찾아올 미래의 고객을 위해 아름다운 산책로를 가꾸고, 경사면에는 구절초와 같은 산야초를 뿌려 놓습니다. 이렇듯 겨울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방학을 맞이해 체험활동을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추우므로 실외보다는 실내 프로그램 위주입니다. 주로 차 마시는 예절을 식물의 효능과 함께 알아보는 다도, 황토의 효능 및 원예 강좌를 통한 치유의 시간, 나목 및 낙엽을 통해 겨울 느끼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물론 눈이 내리면 모두 밖으로 나가 눈사람 만들기와 눈싸움을 하고, 아름다운 설경을 담은 꽃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생태체험마을을 가꾸고, 새롭게 찾아올 봄을 준비하다 보면 심심할 틈 없이 산촌의 겨울이 흘러갑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산촌에서의 삶**

귀산에 관심을 두고 이곳을 찾는 많은 분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말이에요. 다들 예상하듯이 산촌에 살면서 안정적인 수익창출모델을

2.
3.









4.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상과 현실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차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만약 귀산 계획이 있다면,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의 경우와 보통의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모두 시뮬레이션하고 고민해서 귀산을 결정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원예, 조경수 판매와 같은 1차 산업, 그리고 이를 이용한 꽃차 및 장아찌 판매를 하는 2차 산업, 생태체험마을 프로그램과 힐링 스테이와 같은 3차 산업을 서로 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6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자그마한 판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항상 풍족합니다. 상쾌한 공기는 물론이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식물들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고요히 생각에 젖어 들 수 있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지요. 노년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정경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에 저는 산촌에서의 삶을 사랑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 이용길 ]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2004년부터 산촌 생활을 시작했다. '땅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를 모토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연재를 마치며**

산촌에서의 자그마한 일상을 나누고, 자연의 소중함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산촌일기가 어느덧 1년이 되었네요. 〈산촌일기〉를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산촌일기〉를 연재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글을 읽고 찾아오시거나 격려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목인동의 소나무 연리지 두 그루가 내년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중요한 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매거진 숲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 따라 완성하는 겨울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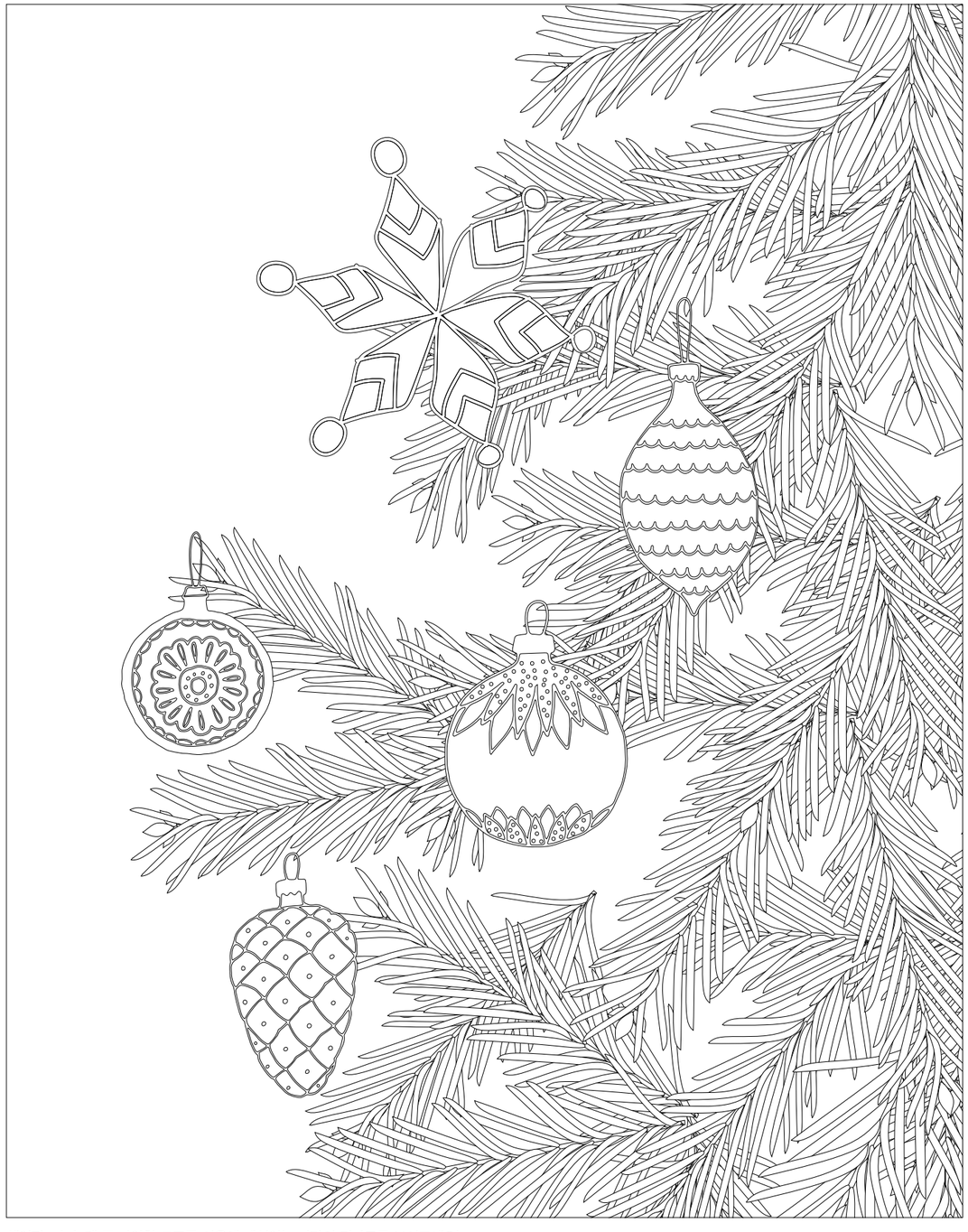
● 전나무

안녕하세요. 전나무에요.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며 멋과 위용을 뽐내는 나무이죠.
늠름하게 뻗은 가지, 아름드리 줄기, 짙푸른 잎은
더할 나위 없이 저를 당당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주죠.
무엇보다 저는 대표적인 겨울나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진행하는 작은 이벤트,
'트리 만들기'에 활용하는 나무가 바로 전나무이죠.
전나무를 트리로 활용하는 데는, 그 수려함이 한몫한답니다.
매년 찾아오는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번 겨울에는 잠시 잊고 지내왔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챙기자니 귀찮고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연례행사이지만,
그 의미와 함께 전나무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냥 지나쳐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
아트테라피를 통해서라도 전나무 트리를 만나보세요.
잠시 바쁜 일상에서 일탈해,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

**과명** 전나무(젓나무) **학명** *Abies holophilla* Maxim.
**분포지** 우리나라 전역, 특히 중 · 북부 지방의 고산지대
**개화기** 4월, 황백색 꽃, 암수한그루 **결실기** 10월에 위를 향해 달리는 갈색의 타원형 구과





색연필, 마커, 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개성있는 나만의 전나무를 보여주세요!

# 독자 여러분의

#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2016년 9+10월호 독자 의견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축령산 잣나무 숲을 시작으로, 아침고요수목원까지! 가평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 기사였습니다. 자세한 소개에 감사드려요! 또, 가평이 잣나무로 무척이나 유명하다니 이번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쁜 사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추현엽**_서울



하룻밤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잣나무가 우리나라 토종 수종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잣나무에 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도 좋았습니다.
**남궁명**_대전



표지부터 어른을 위한 '동화책' 같은 느낌을 주는 매거진 숲! 요번에는 특히 효성왕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잣나무의 한자 명칭에 관한 설명, 그리고 효성왕과 관련된 설화 등.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김호정**_경남 하동



정유정 작가의 책이 출간되면, 바로바로 찾아 읽었어요. 그만큼 광팬인데, 매거진 숲에서 만날 수 있어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얼마간의 '숨 쉬는 시간'을 보내, 멋진 작품을 가지고 다시 독자에게 찾아와주시면 좋겠어요. 고지를 향해 씩씩하게 오르는 정유정 작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정아**_경기도 양주



하루 중 가장 오래 있는 곳은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무심했던 것 같아요. 가드닝에서 소개해준 식물 중 제 사무실에 적합한 것을 하나 선택해, 사무실에서 한 번 길러봐야겠어요. 생각만으로도 사무실이 한결 산뜻하고 상쾌해지는 것 같네요.
**우순자**_경기도 평택



지금 귀산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머지 않아 2년 내로 귀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목인동의 이야기에 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산촌일기를 읽으며, 제가 마치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문회**_김해

